

나주시,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선도한다

기후환경네트워크 전문 인프라 활용한 마을 방문 교육 호응 이달까지 마을당 2차례...영농 폐비닐 분리배출 교육 등 강화

나주시가 찾아가는 주민교육 등으로 전남형 생태학습도시를 선도하고 있다. 나주시는 쾌적하고 건강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마을 20곳에서 '주민 실천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을 갖고 있다. 생태환경교육은 지난 5월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11월 말까지 마을당 2회씩 총 40회차로 진행된다. 나주시 평생교육을 통해 양성된 생태환경 활동가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파견해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의 위험성과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실천 역량을 키우고 있다. 마을 강사 A씨는 "인류가 함께 격정하고 풀어야

할 문제인 생태환경을 주제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지역사회차원의 자발적인 자원 순환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교육"이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나주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나주시기후환경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생태환경 관련 기관·단체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환경 교육 활동가로 구성된 '그린리더', '세븐틴골즈' 등과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서 지난 5월부터 '전남형 생태환경 교육 강사 연수',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나주시 생태환경 활동가 양성 10회·20명', '금성산 생태숲 체험 3회', '생태환경 우수 도시 견학 등'을 추진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타 기관과 연



나주시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마을 20곳에서 '주민 실천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시 제공>

계해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12월 초 '생태학습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모든 주민

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고 실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나주시, 택시요금 인상 10일부터 기본료 4300원

나주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나주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30.3% 오르고 거리 요금은 기존 134m당 140원에서 130m당 14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에서 30초당 14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은 20%, 시계 외 할증은 35%를 적용한다.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는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주시는 KTX나주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요충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안내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감옥 체험하고 전시·연극하고 옛 장흥교도소 문화로 채운다

14일~12월 3일 일시 개방...현대미술전·연극배우와 함께하는 '프리즈놀래'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옛 장흥교도소에서 이색적인 공간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펼친다. 장흥군은 장흥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40년 교정시설의 흔적이 남아있는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와 사람의 온기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공사로 인해 출입이 통제됐던 옛 장흥교도소가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가을 한정 이벤트인 '교도소 톨아보기 : 프리즈놀래 그리고 프리즈놀래'로 일시 개방된다. 톨아보기는 살살이 훑어 가며 살피는 뜻의 우리말이다. 이 행사는 각각 현대미술 전시회인 '프리즈놀래'와 체험프로그램인 '프리즈놀래'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지를 생생하게 엿볼 기회다. 프리즈놀래는 프리즈(감옥)+비엔날레의 합성어로 감옥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전시를 의미하고 프리즈놀래는 프리즈(감옥)+놀래의 합성어로 감

옥에서 신나게 놀아보자는 의미로 '프리즈놀래'와 독음을 맞춘 것이라는 게 장흥군 관계자는 설명이다. 프리즈놀래는 독일 드레스덴 조형예술대를 졸업하고 현대미술분야에서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 이수빈 작가를 비롯, 김규민, 최인호 작가가 협업해 진행되는 현대미술 전시이다. 교도소 내 가장 어두운 공간이자 미학적 색채가 뚜렷한 내부수용동에서 교도소 본래의 특성을 보존하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치, 미디어아트, 개념미술 세계를 선보인다. 체험형 상황극 '교도소 톨아보기 : 프리즈놀래 그리고 프리즈놀래'는 참여자가 수감자로 분해 배우와 함께 교도소 전역을 이동하며 퀴즈를 푸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진행을 맡은 극예술창작집단 흥은 장흥 연극인들로 구성된 연극단체로 그간 지역 소재를 발굴해 창작 및 공연사업을 펼쳐왔다. 체험은 14일(1차) 14:00~16:00, 15일(2차)

14:00~16:00, 18일(3, 4차) 11:00~13:00, 15:00~17:00 총 4회 차로 운영되며 초·중·고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시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 14:00~18:00까지 열리며 월·화요일은 휴관한다. 체험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웹자보와 배너, 현수막에 게시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네이버 폼 링크에 접속 후 정보를 기입하면 신청이 접수된다. 회차별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옛 장흥교도소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단 (061-862-9991)과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현 사업단장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범적으로 준비했지만, 이번 행사는 장흥군 문화자원인 폐 교도소와 지역 내 젊은 예술가가 연결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건강하고 자생적인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의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농업회사법인 다솔, 장흥군에 쌀 1000포대 기부

농업회사법인 (주)다솔은 지난 7일 전남 장흥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들이 1000포대(2500만원 상당)를 장흥군에 기부했다. (사진)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인 다솔은 2017년부터 장흥군 저소득층을 위해 쌀을 기탁하고 있다. 매년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기탁도 이어오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 기부해주신 물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지역화폐 구매해도 20만원 확대

연말까지 70만원으로...10% 할인 유지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성군이 한시적 구매 한도를 늘리고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10월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1인 기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20만원 확대한다. 상품권 구입시 할인율도 10%로 유지한다. 상품권 구입이나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내 23개 판매 대행사에 방문하면 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상품권 전용 앱인 '착(chak)'을 이용해 카드 신청과 충전할 수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 규모가 30억원이 넘는 업소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에서는 농·어·수산물 등 정책발행만 사용 가능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국향대전 19일까지 무료 개방

국화분재전시관·자연생태관 등도 운영...야경도 볼거리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지난 5일 성황리에 종료된 가운데 함평군이 축제장을 2주 동안 무료로 개방한다. 함평군은 국향대전에 보내준 관람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함평 국화가 주는 선물 같은 감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을 무료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에는 중앙광장의 선물상자 애드벌룬, 상벽, 꽃다발, 9층 꽃탑, 마법의 성 등 대형 국화조형물 대부분과 국화분재전시관, 자연생태

관, 친환경농업관 등 다양한 테마의 전시관을 축제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함평천 습지공원의 낙우송길, 역세·팜파스그라스·핑크블러디, 코스모스 단지 등 가을의 향기와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조정 공간과 알뜰달록 색깔의 현애국으로 장식한 대형 쫄나루·희망나루, 각종 포토존 역시 즐길 수 있다. 밤 10시까지 불을 밝히는 야간 경관 조명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 문화예술 르네상스 연다” 문화관광재단 출범

문화관광자원 융복합 콘텐츠 개발

화순의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갈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화순군은 지난 6일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내 동헌 앞마당에서 구북규 화순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역 문화예술인,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재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19년 5월 설립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5월 타당성 연구용역,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에 이어 2022년 12월 재단설립 조례 제정, 2023년 9월 발기인 대회 겸 창립총회 등을 거쳤다. 재단은 구북규 이사장, 강신기 대표이사와 관광 기획 및 마케팅팀, 문화진흥팀, 경영지원팀 등 3개 팀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문화관광자원을 융·복합해 화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정책과 폭넓은 협력 네트워크 등을 통해 화순의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강신기 대표이사는 "화순이 가진 자연과 역사적 자원을 문화관광산업으로 이끌기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단의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화순 관광 500만 시대 개막에 재단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 정책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데 문화관광재단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대 18일 마지막 공연

내년 4~5월 재운영 예정

화순군의 새로운 명소가 된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대가 올해 운영을 마감한다. 화순군은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대가 오는 18일 공연을 마친 이후 겨울철 휴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 개장한 화순천 꽃강길은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삼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관광 하천을 조

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음악분수대는 길이 60m, 폭 10m의 음악 수조와 최대 높이 50m의 캐논 슈터, 681개 노즐, 263개의 LED 수중조명, 빔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초대형 분수대다. 함께 조성된 광장과 관람석, 코스모스 산책로, 화려한 경관·조명까지 결합되어 화순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음악분수대 공연은 18일까지 평일 1회(오후 7

시), 주말 2회(오후 6시30분, 7시30분) 계획이며 당일 기상조건에 따라 유동적이다. 내년 재운영 시점은 정비가격을 거쳐 4~5월경에 예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푸드트럭과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를 접목시켜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야간 경관을 연출할 것"이라며 "인생사진 촬영 명소로도 손색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함평군 드림스타트 가족 문화체험 호응

10일까지 자동차극장 영화 관람

함평군이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함평자동차극장에서 '드림스타트 가족 자동차극장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영화 관람을

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번 문화체험이 아이들과 가정애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